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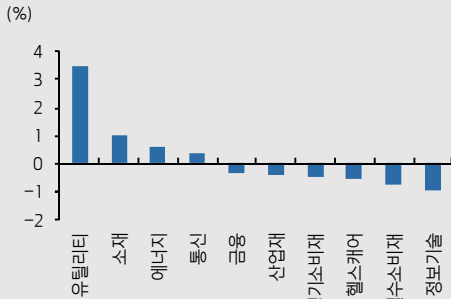


투자전략

Strategist/Economist **마주옥**
02) 3787-5025 majuk@kiwoom.com
RA **이용목** 02) 3787-4708
mookyl@kiwoom.com

CHINA MARKET

심호300 업종별 등락률



자료: 상해증권거래소

China Market Indices

	Close (pt, 위안)	변동폭 (pt, 위안)	변동률 (%)
상하이 상하이 종합지수	2,385.42	2.95	0.12
상하이 A	2,496.83	3.06	0.12
상하이 B	277.77	-0.95	-0.34
심천 심천 종합지수	936.21	-6.39	-0.68
심천 A	975.60	-6.72	-0.68
심천 B	870.18	-1.67	-0.19
홍콩 홍콩 항셱지수	23,729.53	-92.53	-0.39
홍콩 H	12,130.59	-41.65	-0.34
홍콩 레드	4,698.83	-40.11	-0.85
환율 위안/달러 환율	6,2190	-0.0014	-0.0225
12개월 선물환	6,3085	-0.0005	-0.0079
상품 아연(위안/Metric Ton)	16,080	175	1.10
구리(위안/Metric Ton)	59,560	340	0.57
알루미늄(위안/Metric Ton)	15,345	55	0.36
연료유(위안/Metric Ton)	5,193	-128	-2.41
곡물 옥수수	2,473	7	0.28
콩	4,862	1	0.02
대두유	8,810	94	1.08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어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월 중국 제조업 PMI

전달보다 소폭 하락, 하지만 경기회복세 이어가

>>> 1월 제조업 PMI 50.4%, 경기회복세 이어가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중국의 제조업 PMI가 50.4% 상승했다. 이는 예상치 51%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전달 50.6%보다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경기 판단선인 50%를 지난해 10월부터 상회하고 있다. 또 1월 말 발표된 경기선행지수 역시 지속해서 반등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지난해 4/4분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가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기업별로는 대기업은 51.3%로 전달보다 0.2%pt 상승했다. 중소형 기업은 각각 49.7%, 46.2%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각각 0.2%pt, 1.9%pt하락했다. 보통 국유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진행된다. 물론, 중소형, 민간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나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즉, 2013년 도시화 건설을 위한 SOC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수치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월에는 최근 늘어나고 투자수요와 2월 춘절효과 등이 존재한다. 이 또한 제조업 PMI가 상승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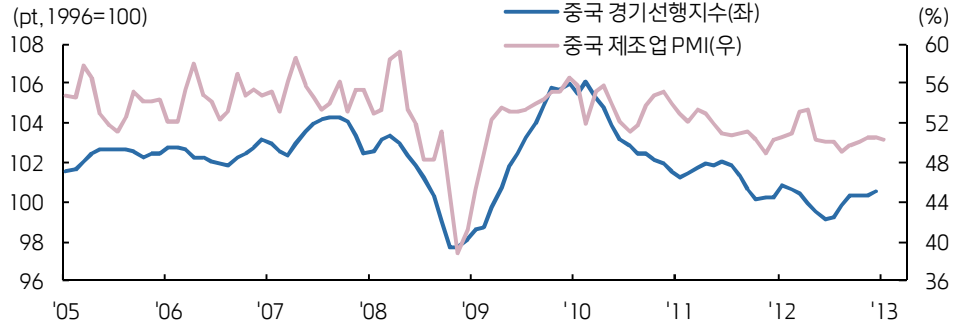
>>> 국내수요 개선 중

세부항목을 보면 국내수요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생산지수는 51.3%로 전달보다 0.7%pt 하락했다. 이는 비중이 큰 중공업보다 소매 판매 업종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산업별로 담배, 자동차, 농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업들이 50%를 상회했다. 반면, 석유가공, 비금속, 화학, 목재 등은 50%를 하회했다.

신규주문지수는 51.6%로 전달보다 0.4%pt 상승했다. 이는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또 수입지수는 49.1%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소폭(0.1%pt)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 신규주문지수는 48.5%로 전달보다 1.5%pt 하락했다. 그만큼 국내수요 즉, 정부 및 가계수요가 개선되고 있지만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한편, 원자재 재고지수는 전달보다 2.8%pt 상승한 50.1%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0%를 상회한 수치다. 산업별로 보면 원유, 제지,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재고지수는 50%를 상회했다. 2월 춘절 소매 판매 성수기에 따른 재고재구축을 의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철도, 항공운수 설비, 비금속, 통신전자 등은 하회했다. 설비투자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고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요증가는 원자재 구매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3.9%pt 상승한 57.2%를 기록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요를 위해 재고재구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기선행지수 vs 제조업 PMI 추이



자료: 통계청, CEIC

제조업 PMI 세부항목

	2012년			2013년	전월비
	10	11	12	1	(%pt)
PMI	50.2	50.6	50.6	50.4	-0.2
신규주문	50.4	51.2	51.2	51.6	0.4
생산	52.1	52.5	52.0	51.3	-0.7
고용	49.2	48.7	49.0	47.8	-1.2
공급자 배달	50.1	49.9	48.8	50.0	1.2
원자재 재고	47.3	47.9	47.3	50.1	2.8
신규 수출 주문	49.3	50.2	50.0	48.5	-1.5
구매	51.2	51.4	52.1	53.2	1.1
완성품 재고	48.1	48.8	49.4	47.4	-2.0
구입가격	54.3	50.1	53.3	57.2	3.9
수입	48.4	48.5	49.0	49.1	0.1
미충족 주문	43.8	45.3	45.9	44.4	-1.5

자료: 통계청, CEIC

◎ 중국시황

금융업종 및 부동산
업종 중심으로 조정양
상 나타나

전일 중국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최근 지수상승(1월 5.12%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장중 하락 전환했다. 보험, 은행, 증권 등 금융업종과 부동산 업종이 조정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1선 도시의 정책강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전일 새벽 미국 FOMC에서 금융완화 기조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비철, 석탄 등의 글로벌 상품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SOC투자에 대한 투자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됐다. 이는 중국 내의 관련업종(공정기계, 전력망, 비철금속, 석탄 등)의 상승을 이끌며 지수하락을 제한했다. 당일 상해종합지수는 0.12% 상승한 2,385.42pt로 마감, 거래량은 1,162억 위안을 기록했다.

◎ 홍콩시황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 우
려

전일 홍콩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4/4분기 미국 GDP -0.1%를 기록하며 예상외 부진했다. 이뿐 아니라 중국내륙 부동산 정책 강화 가능성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리평(hk00494), 화운부동산(hk01109), 형지부동산(hk00012)는 각각 3.71%, 2.48%, 2.70% 하락했다. 업종별 지수는 금융이 0.06%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동산, 공공사업(유틸리티)가 각각 0.02%, 1.49%, 0.69% 하락했다. 당일 홍콩항생지수는 0.39% 하락한 23,729.53pt, H지수는 0.34% 하락한 12,130.59pt를 기록했다.

>>> 중국 및 홍콩증시 주요 차트

홍콩항셱 vs 상해 종합



상해 A vs 상해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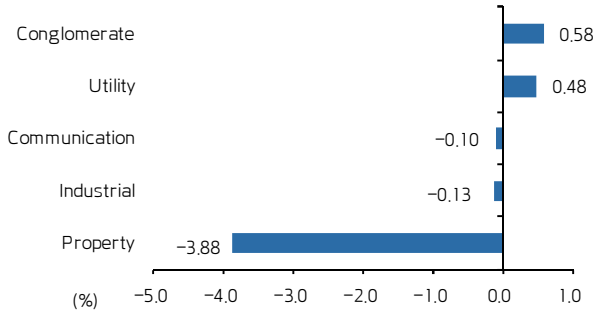
상해 A vs 상해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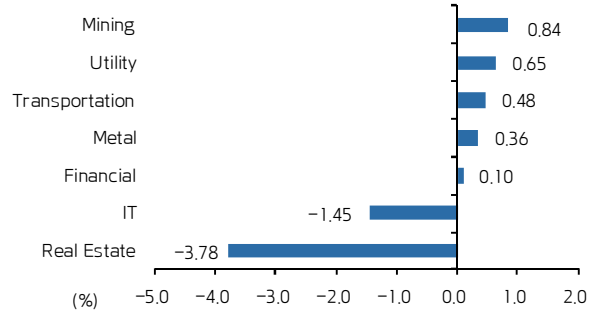
항셱 H vs 항셱 레드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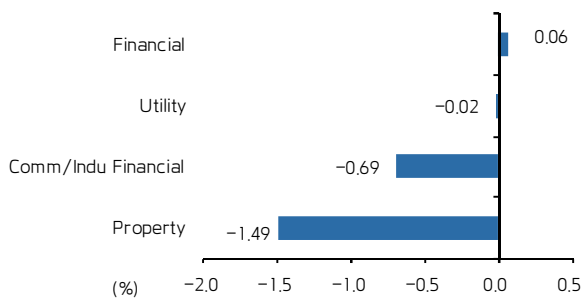
상해 종합 업종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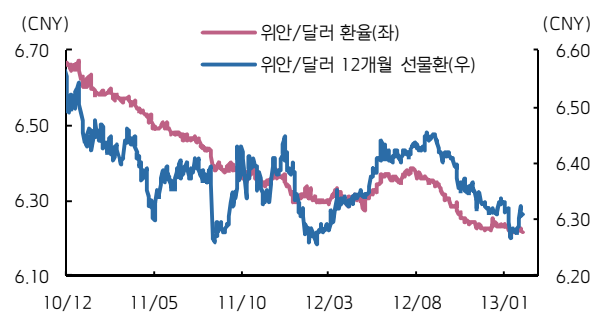
심천 업종별 등락률



홍콩 업종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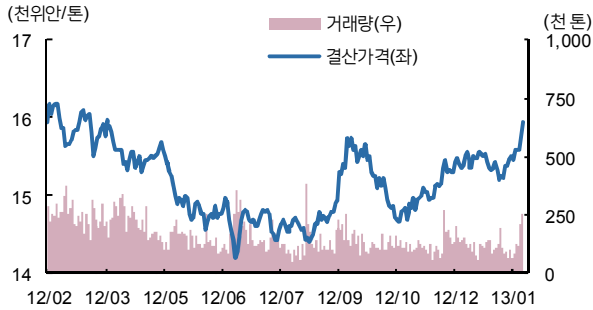


심천 업종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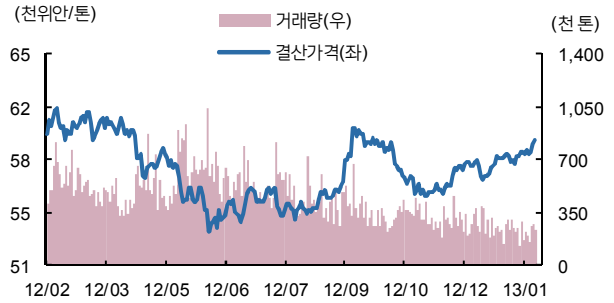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가격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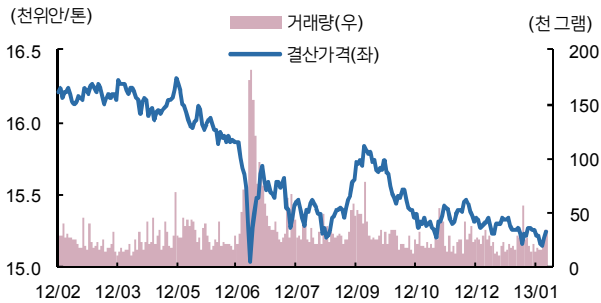
아연 3개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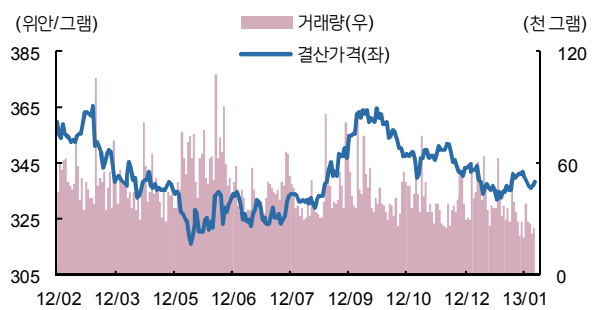
구리 3개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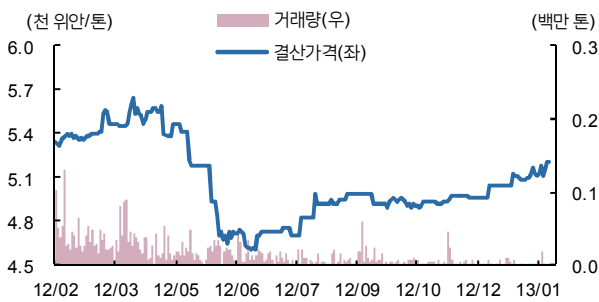
알루미늄 3개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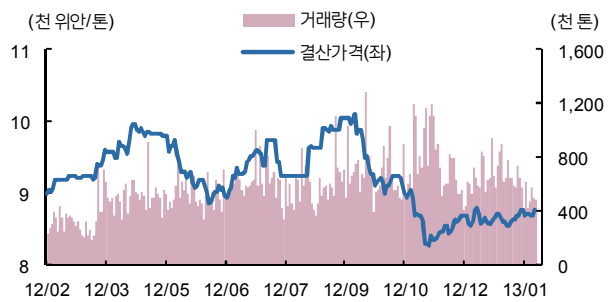
금 3개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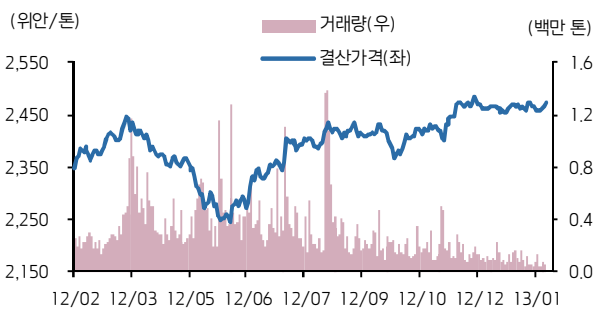
연료유 3개월물



대두유 3개월물



옥수수 4개월물



대두1호 4개월물

